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인사정책 공감설명회

전라남도교육청이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사진)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청, 9일 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1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 권역별로 ‘2025 찾아가는 인사정책 공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역별로 약 200여명의 일반직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렬교육 △일반직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 안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주요 사항 안내 등이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의 응답 및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는 인사 고충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인사상담센터’를 운영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노병하 기자



동신대-(주)에버모어테크놀로지스 협약

교육부 2025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받아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UCC)을 추진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에버모어테크놀로지스와 글로벌대학 UCC 및 이차전지·에너지ICT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8일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신대학교 세미나1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주희 동신대 총장과 ㈜에버모어테크놀로지스 Michael Rhee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신대연합의 글로벌대학 UCC N-캠퍼스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이차전지·에너지ICT 연계 융합 교과 및 실무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나주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깊고 앞으로 함께 글로벌 협업 모델을 구축해 전남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소방,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훈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용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훈련에는 광주소방학교 교관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 전용장비의 진화원리·사용법 △가상의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방법 △장비별 사용방법·노하우 공유 등이 진행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화재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고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며 “화재진압 기술·장비 확보에 노력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호남대 RISE사업단, ‘현장소통 간담회’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7일 광주RISE센터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대학과 센터 간 상건례 및 대학 RISE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사진)

8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정제평 사업단장을 비롯해 이은경 사업부단장, 김규하 사업본부장, 단위과제별 책임교수 등 RISE사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광주RISE센터에서는 김보현 센터장, 최은희 팀장을 포함한 실무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 사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학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광주RISE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서광중학교 ‘서광 독서 페스티벌’ 개최

광주서광중학교는 지난 7일 강당에서 ‘서광 독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

8일 서광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독서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2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교 특색사업 ‘서로(書路) 함께 다독다독(多讀多讀)’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고전이 답했다’ 고명환 작가가 ‘독서의 잠재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 작가와 대화시간, ‘미니 독서 골든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서광중 김태현 학생은 “책을 통해 삶을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광중은 앞서 ‘세계 책의 날과 저작권의 날’ 행사, 교육복지실 필사데이, 기후환경 생대 주간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노병하 기자



호남대 응급의료교육센터, 교직원 교육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는 최근 광주석산고등학교에서 교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7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응급구조학과 4학년 재학생 김낙훈, 김승재, 김연우, 서영주, 윤소연, 윤아영, 이현아, 최지현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

교육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교직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본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CPR) 시행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효철 응급의료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응급의료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조선대-스마트인재개발원, AI 기반 융합인재 양성 맞손

조선대학교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AI 기반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8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춘성 조선대 총장, 강문수 SW중심대학사업 부단장, 강진희 취업학생부처장, 스마트인재개발원 차준섭 이사장, 반수경 원장, 임성식 부원장, 차현석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및 디지털 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 △정부 공모사업 공동 대응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 공동 운영 △AI 중심 교육 콘텐츠 및 실습 기반 공유 △공동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 총장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과 인재 역량 강화는 지역산업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조선대는 AI기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인재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그간 축적해온 스마트인재개발원의 AI 기반 실전형 교육 인프라와 조선대학교의 교육 역량이 결합된다면, 차세대 융합 인재 양성에 있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소년 삶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한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는 광주교육연수원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학교 밖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년째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총 16차시 48시간에 걸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독립 공방에서 △사계절 식탁 △슬모를 만드는 나무 △뿌리깊은 웹툰 △인생의복점 △말랑말랑 음악캠프 △슬로우 무비메이커 과정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운영된 지난 5일에는 ‘통합 쇼케이스’를 열고 6개 공방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물을 전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육연수원은 오는 8월에는 하반기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노경희 광주교육연수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됐을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적 진로 교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KCM, 가족송 ‘그댄 내게 가장 예뻐요’ 발표

가수 KCM이 8일 오후 6시 가족을 주제로 한 사랑 노래 ‘그댄 내게 가장 예뻐요’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사진)

‘그댄 내게 가장 예뻐요’는 KCM이 두 딸과 아내를 위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가족을 향한 고마움과 애뜻함을 담았다.

이동휘 감독이 연출한 뮤직비디오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겸 디자이너 정규리가 출연했다.

KCM은 “매 순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그댄 내게 가장 예뻐요’는 그 사람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노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